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2021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요약) III

마인츠市	정원박람회 유치 준비와 라인강변 정비 사업 착수
프랑크푸르트市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책방향 전환 모색
뉴욕州	공평한 백신 접종 등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뉴욕市	코로나19 이후 도시재건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
로스앤젤레스市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안정 지원 추진

플로리다州	“교육, 환경, 경제 등 지역성장을 선도하는 州로 발전해야”
도쿄都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 개최 추진
충칭市	“2021년은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첫해로 매우 중요”
쓰촨省	올해 경제성장을 7% 이상 달성 추진
포산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혁신도시 조성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샌디에이고	김민희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박효택		홍남명
시카고	강기향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올랜도	박혜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워싱턴 D.C.	이정근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하와이	임지연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휴스턴	이경선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토론토	고한나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정원박람회 유치 준비와 라인강변 정비 사업 착수

독일 마인츠市 / 미하엘 에블링(Michael Ebling) 시장 / 신년사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좋아하는 축제를 제대로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26년 정원박람회 유치 준비에 착수. 또한 오랜 숙원사업인 라인강변 정비 사업도 시행할 예정

지난해에 겪은 어려움과 올해의 희망

- 2020년 마인츠의 경험
 -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었던 2020년에 희망과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
 - 시민들이 축제와 모임을 즐기지 못했으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았음
 - 그럼에도 2021년에는 분명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
- 2021년 마인츠의 이유 있는 희망
 -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코로나 방역대책을 숙지하고 준수
 -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극복을 기대
 - 백신을 개발한 바이온테크(Biontech)가 마인츠에 있음. 즉, 마인츠에서 희망이 싹틈

올해 주요 사업

- 2026년에 열릴 라인란트팔츠州 정원박람회(Landesgartenschau)¹⁾ 유치를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해 가을경에 유치 신청 예정
 - 정원박람회 유치 준비를 위해 정원박람회 디자인 시민참여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함

1) 정원박람회는 '지역 정원 쇼'라고도 함. 1970년에 라인 베스트팔렌 북부 지역에서 처음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州와 바바리아의 지역 정원 쇼로 발전한 이래 다른 州에서도 개최함. 州 내의 도시가 돌아가면서 정원박람회를 유치하고 있음. 라인란트팔츠州의 경우 2000년에는 카이저스라우테른, 2004년에는 트리어, 2008년에는 라인강변 도시인 빙엔, 2015년에는 란다우에서 열렸으며, 2022년 개최 도시는 닛노이에나르 아르바일름. 2011년에는 라인란트팔츠州 내 코블렌츠에서 독일 연방 단위의 정원박람회를 유치하여 州 정원박람회는 별도로 열지 않음. 이 행사는 州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녹지 쇼, 조각공원, 화훼 전시, 지역의 역사 및 사회 이슈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특별기획 야외 전시회를 비롯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 설계와 도시 마케팅을 진행. 라인란트팔츠州의 주도(州都)인 마인츠市는 2026년 열릴 정원박람회 유치 신청을 할 예정임

- 녹지대와 공공공간과 문화를 서로 잇는 방안을 토론
 - 市정부, 市의회,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상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논의²⁾
- 市의 오랜 숙원사업인 라인강변 정비 사업을 시작
 - 축제 부스 면적 확대, 자전거도로 확장, 조명 등 필요 공간 확보
 -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녹지대 확충

<https://www.youtube.com/watch?v=-HLiEzHy7Yo>

<https://www.fr.de/wissen/corona-impfstoff-biontech-pfizer-usa-oxford-grossbritannien-mainz-wirksamkeit-durchbruch-zr-13752083.html>

<https://sensor-magazin.de/landesgartenschau-in-mainz-buergerbeteiligung-startet-am-24-februar/>

https://en.wikipedia.org/wiki/Regional_Garden_Show

https://de.wikipedia.org/wiki/Liste_der_Landesgartenschauen_in_Rheinland-Pfalz

<https://sensor-magazin.de/auf-zu-neuen-ufern-zur-aufwertung-des-rheinufers-bis-hin-zur-nordmole/>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

2) 시장 신년사 발표 이후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인 일정: 5월 19일 시민 대상 보고회, 6월 30일까지 市의회 실현 가능성 검토결과 보고회, 10월 15일까지 유치 신청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책방향 전환 모색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 페터 펠트만(Peter Feldmann) 시장 / 공동 신년사¹⁾

코로나19는 방역수칙의 중요성과 학술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요양시설이나 온라인 수업 실패 등을 통해 기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나도록 함. 하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했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방향도 전환할 필요가 있음

2020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인식

- 코로나19가 가르쳐 준 것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신선한 공기 등이 바이러스 방역에 중요하다는 점
 - 코로나19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함.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제한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
 - 학술연구결과를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하지만, 향후 연구결과가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
 -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기존 문제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뚜렷하게 드러나게 함. 요양시설 실패나 온라인 수업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²⁾
- 위기의 시대에서 본 우리들의 가능성
 - 역사에서 위기는 새로운 발상과 창의력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음
 - 집에만 있어야 하는 주민들의 장보기를 돕거나, 지역 상인과 동네 소극장을 살리려고 애쓰는 등 시민들은 마음을 열고 이웃을 도움
 - 시민들은 어린이를 위한 낭송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문화시설을 지원하기도 함
 - 우리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써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함

1) 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그동안 페터 펠트만 시장과 슈테판 지글러(Stephan Siegler) 시장의 의장이 공동 신년사를 발표해오다가 지난해에는 펠트만 시장의 단독 신년사 형태로 발표되었음. 그런데 올해 신년사는 다시 공동명의로 발표됨. 참고로 펠트만 시장은 시민당 소속이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됨. 현재 시의회는 기민련(독일 기독교민주연합)과 녹색당이 연정을 하고 있음

2) 이 부분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행에 있어 컴퓨터, 인터넷 이용 문제로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판단

2021년 정책방향과 시민참여 당부

○ 전반적인 정책방향 전환 필요³⁾

- 주택정책
 - 투자자 중심이 아닌 세입자 중심 정책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급아파트가 계속 세워져 주택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았음
 - 시립 주택공사가 공공재원을 지원받을 때 적용하는 규정을 더욱 강화
- 보육정책
 - 인터넷 등록을 통한 보육시설 배정으로 효율성 증대, 보육교사 확충
- 교통정책
 - 2021년 1월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시내 운행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로 강화
 -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에 대한 논의 확대
 -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 검토
- 경제정책 등
 - 코로나19로 위축된 도심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도심 지역 재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소상공인 영업장과 문화시설 살리기를 통해 '다시 빛나는 도시 만들기' 추진

○ 지방선거 참여 독려

-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은 39%로 저조
-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적극 행사해야 민주주의가 발전

<https://www.frankfurt-live.com/neujahrsbotschaft-von-stadtverordnetenvorsteher-siegler-und-ob-feldmann-127989.html>

<https://en.mainefamilienagentur.de/post/kinderkrippe-kindergarten-co-so-funktioniert-es-in-frankfurt-am-main>

<https://hausamdom-frankfurt.de/beitrag/immer-noch-da-klimakrise-fuer-eine-zukunftsfaehige-verkehrspolitik/>

<https://www.hessenschau.de/politik/frankfurt-fuehrt-tempo-40-in-der-innenstadt-ein,tempo-40-innenstadt-frankfurt-100.html>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

3) 이번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논의되었거나 제기된 정책 담론 등으로 市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파악해볼 수 있음

공평한 백신 접종 등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미국 뉴욕주 / 앤드루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 / 신년사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촉진하며, 모든 계층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갈 계획. 이를 위해 공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을 지속 추진. 또한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창출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방침

코로나19 대응

- 공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뉴욕주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
 - 뉴욕주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종 및 사회적 계층 간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 북미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공급량을 확보하고, 농촌 지역 및 도시빈민, 공공주택 주민 등에 대한 백신 접근성을 높일 계획
-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주민들이 원격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기존 의료시스템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 원격의료시스템 개혁을 계획
- 의료용품 공급 관련 법률 제정 계획
 - 미국에서 생산된 의료용품과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州政府 차원의 법 제정 추진

경제 재개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코로나19에 대한 연방정부의 늦장 대응에 항의
 - 州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정한 코로나19 관련 예산 지급을 강력히 요구
- 온라인게임산업 합법화
 -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모바일, 웹 기반 온라인게임 합법화를 위해 온라인 스포츠 업체와 플랫폼 운영자 선정 및 허가 관련 정책을 준비
- 농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 추진

- 풍력에너지 생산 기반 마련
 - 뉴욕주는 풍력발전 터빈을 생산하고 미국 내 최대 해상풍력발전시설 구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 사업계약을 체결함
-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전송하는 슈퍼하이웨이¹⁾ 건설
 - 400km에 달하는 친환경 슈퍼하이웨이 설치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용 극대화를 추진
-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 풍력에너지 발전시설과 함께 해상풍력에너지 관련 인력양성시설을 설립하여 2,500여 명이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기타 정책

- 가정폭력과 성폭력 적극 예방
 -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 이니셔티브를 수립
- 치안개혁 촉진
 - 경찰조직 개혁 및 혁신연합(The Police Reform & Reinvention Collaborative)²⁾은 뉴욕주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치안 전략을 현대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보육서비스 접근 확대
 - 취약계층의 부모와 자녀가 보육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줄여 32,0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
 - 기업에서 직원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 보조금 지급,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

1) 대량생산된 에너지를 먼 곳까지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 송신 기반시설로, 해상에서 생산된 전력을 슈퍼하이웨이를 통해 뉴욕주로 보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쿠오모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경찰이 해당 지역사회와 상호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며 공공안전유지를 위한 치안개혁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찰조직을 말함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2021-state-stat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2021-agenda-and-releases-full-agenda-reimagine-rebuild-renew>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atoms/files/SOTS2021Book_Final.pdf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코로나19 이후 도시재건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

미국 뉴욕시 /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 신년사

2021년 뉴욕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도시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기후위기 대응 등에 역점을 둘 계획

경기 활성화(jumpstart the recovery)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 6월까지 5백만 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 백신 접종은 뉴욕시의 완전한 경제활동 재개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토대임
 - 412개 백신 접종처의 연중무휴 운영으로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고, 이로써 높은 수준의 집단면역을 이루고자 함
- 5월부터 시 직원들의 완전한 복귀 시작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천 명의 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해오고 있음
 - 시는 하루 3천 명 이상의 백신 접종을 통해 5월부터 시 직원들이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백신접종기구(Vaccine for All Corps)의 인력 충원
 - 시는 백신 접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천 명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
 -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 주민을 고용함으로써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쌓고자 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 조직 개편

- 인종 간 화합과 평등을 위한 전담기구 상설화
 - 인종 간 화합과 평등을 위해 2020년에 설치한 Taskforce on Racial Inclusion and Equity는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으로 인력 구성
 - 이 조직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퀸스, 브루클린, 브롱크스)의 1차 의료 서비스 확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재계획 착수, 요식업계 종사자의 해고 방지를 위해 230만 달러 지원 등의 활동 수행

- 이 기구를 市 조직으로 상설화하여 인종, 사회, 경제, 기후 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끌어 내고자 함
- 헌장개정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 신설
 - 市는 헌장개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파악하여 근절방안을 제시
 -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개선방안을 법제화하여 인종 간 화합과 평등의 길을 모색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비전

- 고용수준 회복
 - 市는 코로나19로 감소된 일자리를 회복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 초의 고용 수준을 되찾고, 더 나아가 올해 말까지 4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자 함
 - ‘지역사회 우선 고용 계획(Community Hiring First plan)’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수천 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달러의 임금 소득 등이 해당 지역사회에 유입되도록 함
 - 또한 市는 저소득층, 빈곤율이 높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뉴욕주에서 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
 - 일자리 회복이 사회적 소수집단(minority)과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市의 공공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 대출기금이 사회적 소수집단, 여성, 비영리 개발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세계 경제 수도에서 나아가 세계 공중보건 수도로”
 - 市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수요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음
 - 이를 기반으로 타 감염병의 대유행 시 필요한 진단검사와 치료 수요에 대해서도 市가 선진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소 및 기관(Pandemic Response Lab, NYC pandemic Response Institute)을 설립
 - 향후 10년 내에 市는 생명과학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최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보급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접촉자 추적 조사를 위해 설립된 조직(Test & Trace Corps)을 상설기구화함으로써 4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市는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상공인 세액공제(NYC Small Business Recovery Tax Credit)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큰 문화예술계, 요식업, 숙박업 등의 최대 17,000개 업체에 임대료를 보조할 계획
- 이 외에도 소기업에 부과된 벌금을 감면하고, 자체 점검에 대한 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

기후변화 위기 대응

○ 관련 투자 대폭 확대 및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

- 캐나다의 청정 수력발전소와의 전력망 연결을 통해 市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5년까지 100% 달성 목표 추진
- 2030년부터 신축 건물에 도시가스 등의 화석연료 공급망 연결을 불허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임차인과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 뉴욕시의 연기금(年基金)은 보유한 운용자산의 탄소발자국(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보고해야 하며,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해야 함
- 시내 2개 교량(브루클린 다리, 퀸스버러 다리)의 일부 차로를 자전거도로로 변경하고, 모든 자치구에 자전거 도로(bike boulevard)를 설치하여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보장
-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심한 지역에 신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소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62-21/state-the-city-2021-mayor-de-blasio-recovery-all-us>

<https://www1.nyc.gov/html/dot/downloads/pdf/open-streets-overview.pdf>(오픈스트리트 개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5312&cid=61234&categoryId=61234>(탄소 발자국 정의)

윤 규 근 통신원, gggyoon89@gmail.com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안정 지원 추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 에릭 가세티(Eric M. Garcetti) 시장 / 신년사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노숙자를 지원하는 긴급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 이를 통해 로스앤젤레스시는 정의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진단검사키트, 개인 방역 물품을 모든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
 -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던 장소를 현재는 백신 접종 장소로 운영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시행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다음과 같은 음식점 관련 정책을 승인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
 - 시에서 음식점의 주류 판매를 승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90% 단축하고, 허가 신청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70% 감소
 - 음식점을 대상으로 3년간 8천 달러 이상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
 - 음식점이 최대 1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주차요건 관련 규정 완화¹⁾
-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지원
 - LA 최적화 프로그램(L.A. Optimized)을 통해 1,000개의 작은 사업체들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제작 지원, 브랜딩, 마케팅 자원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 LA 최적화 프로그램은 시에서 2020년 11월에 시작했으며, 중소기업이 팬데믹 중에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 프로그램
- 소상공인 재정 지원
 - 5,000개의 작은 사업체에 5천 달러씩 지원할 수 있도록 2,500만 달러 규모의 정책 프로그램 시행

1) 로스앤젤레스시는 음식점, 카페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공간에 대해 손님 3명당 1개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최소 10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22PLZO_DIV6DEST_CH22.112PA_22.112.070REPASP)

주거안정 지원

- 10만 가구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긴급 임대료 보조(L.A.'s Emergency 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운영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 각 지역의 중위 소득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연방정부의 American Rescue Plan 프로그램을 통해 3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여름경에 지원할 계획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 집행 예정
 - 2013년 이후 市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직원 수가 1,000% 증가
 - 프로젝트 룸키(Project Roomkey)를 통해 작년 한 해 노숙자 약 8,000명이 보호소와 호텔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
 - 프로젝트 룸키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진 호텔을 정부가 빌려 노숙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영구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올해는 추가로 최소 1,200명이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바우처(voucher) 발급 예정

공공 인프라 투자

- 전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
 - 좋은 교통기반시설을 구축하면 통근거리가 짧아지고, 시민 건강 및 거리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
 -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
- 대중교통 부문
 - 현재 15개 노선을 건설 중이며, 새로운 노선을 추가로 계획 중
 - 코로나19의 여파로 운행을 감축했던 대중교통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 올해 9월에 모두 재개
- 수자원 부문
 - 80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넥스트(Operation Next) 사업을 통해 수자원 재활용 인프라 구축

- 이 사업은 市 수도전기국이 위생환경국과 협력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전반적인 급수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로스앤젤레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재활용수는 전체 수자원의 2%를 차지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전체 수자원의 35%로 늘릴 계획

여름 청년 일자리 투자

- 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 400명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
 - 학생들이 가정교사 또는 예술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이민자 가정을 돕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Angeleno Corps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 1대1 학생 지도(Student-to-Student Success Pilot)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1,00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벌어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

<https://lamayor.org/SOTC2021>

<https://www.lamayor.org/full-text-2021-state-city-address-now-available-lamayororg>

<https://optimizedla.com/>

<https://covid19.lacounty.gov/project-roomkey/>

https://www.ladwp.com/ladwp/faces/ladwp/aboutus/a-water/a-w-sourcesofsupply/a-w-sos-operationnext?_adf.ctrl-state=abhppdfwi_4&_afLoop=401354685795416

박 신 아 통신원, shinah.park3@gmail.com

“교육, 환경, 경제 등 지역성장을 선도하는 州로 발전해야”

미국 플로리다州 /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 / 신년사

2021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 고령자 우선 코로나 19 백신 접종 정책,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 수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미국 내에서 지역성장을 선도하는 州로 발전하기를 희망

고령자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정책 ‘Senior First’ 실시

- 백신 접종 장소를 추가 확충해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 확대
 - 플로리다 비상관리본부와 보건부가 서로 협력하여 백신 접종 장소를 추가 확보한 뒤 고령층에 관련 정보 제공
- 지역 내 취약계층에 우선 접종
 -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Escambia 카운티 내 교회를 중심으로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장기요양시설 거주 고령자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3,000개 이상의 시설을 州가 직접 관리
- 코로나19 확진자 전용 요양시설 건립
 - 코로나19 팬데믹 초반부터 플로리다州는 고령자 보호에 주력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노인 환자를 민간 장기요양시설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거부
 - 향후 州가 직접 관리하는 코로나 확진자 전용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장기요양시설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

“교육을 선도하는 플로리다州”

- 플로리다州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대면 교육 환경 제공
 - 지난 1년간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발생
 - 플로리다州는 교육청, 교사, 기타 학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대면 교육에 성공

-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확보
 - 2021/22 회계연도 예산 기준 초·중·고 교사의 평균 급여를 약 4만 7천 달러로 인상하기 위해 5억 5천만 달러의 예산 확보
 - 공립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州 자금 129억 달러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이는 학생 1인당 약 8천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30달러 증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1천만 달러의 예산 확보

“환경보호를 선도하는 플로리다州”

- 수자원 보호는 플로리다州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
 - 플로리다 북부에 위치한 에버글레이즈 습지는 1970년대 람사르 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되었으며, 1980년대 습지 내 운하를 제거하면서 복원사업을 시작
 - 에버글레이즈 복원과 플로리다 수자원 보호를 위해 총 25억 달러 투입을 목표로 지난 2년 동안 약 1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환경보호 및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
 - 해수면 상승, 매해 발생하는 허리케인 및 홍수로 인한 커뮤니티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된 Resilient Florida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21/22 회계연도 기준 약 10억 달러의 예산 투자
 - 수질 개선을 위해 1억 4천5백만 달러,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식수 공급에 4천만 달러, 유해 조류 번식 억제 및 적조(赤潮) 퇴치를 위해 2천5백만 달러의 예산 투자

“지역경제 개발을 선도하는 플로리다州”

- 낮은 수준의 플로리다州 실업률
 - 플로리다州의 실업률은 2020년 기준 7.7%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뉴욕州(10%), 캘리포니아州(10.1%), 하와이州(11.6%)보다 낮은 수준
 - 향후 실업률은 플로리다州 경제 회복을 반영한 일자리 증가로 더욱 낮아질 전망
- 코로나19 이후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지역 인프라 및 직업훈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보조금에 약 5천만 달러의 예산 투자
 - 경제 성장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한 캠페인·마케팅 활동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 조직인 Enterprise Florida, Inc.에 5백만 달러 지원

- 플로리다의 주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 부흥을 목표로 VISIT FLORIDA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전 세계 관광객에게 관광지로서 안전한 플로리다를 홍보할 예정
 - 연방정부의 해외 관광객 입국제한 완화로 고용상황은 더욱 개선될 전망

<https://www.flgov.com/2021/03/02/governor-ron-desantis-state-of-the-state-address-2/>

<https://www.flgov.com/2021/01/28/governor-ron-desantis-announces-his-florida-leads-budget-proposal-for-fy-2021-2022/>

<https://www.flgov.com/news-releases-archive-desantis/>

<https://www.orlandosentinel.com/politics/os-ne-desantis-state-of-the-state-address-2021-20210302-2ekeljgndndmto7s7nehhy2lma-story.html>

박 혜 진 통신원, hj2201@ufl.edu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 개최 추진

일본 도쿄都 /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 / 신년사

도쿄都의 2021년 주요 과제는 코로나19 극복, 도쿄올림픽 개최임. 이에 都는 연초부터 긴급 사태선언을 발령하고 코로나 극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올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

- ‘코로나19 특별경보’ 발령
 - 사람들의 이동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 올해 1월 2일 중앙정부에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요청
 - 이에 따라 저녁 8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저녁 8시로 단축, 사무실 출근자 70% 줄이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이 발령
 -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종사자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
- 도민과 사업자에게 협력을 요청해 실효성을 제고
 - 도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세이프티 넷¹⁾ 강화
 - 사람들의 이동을 철저히 억제하여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줄임
 - 도민과 사업자의 공감을 얻어 실효성을 높임
 - 도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3밀’²⁾ 지양, 주 4회 재택근무 실시, 70% 이상 사무실 출근자 줄이기 등 감염 확대 방지대책 지속 추진
 - 도청 직원은 늦어도 오후 8시까지의 전부 퇴근을 하도록 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 ‘지속가능한 회복’(Sustainable Recovery) 추진
 -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향
 - 도청에 디지털국³⁾을 신설하고 디지털을 활용해 도정 서비스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킴

1) 세이프티 넷(safety net)은 안전망으로 번역되는 용어로, 안전망과 같이 사회의 안전과 안심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를 말함
 2) 3밀(3密)은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일본 총리관저와 후생노동성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피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했으며, ‘밀폐/밀집/밀접’을 가리키는 용어임. 영어권 국가에서는 Three Cs·3Cs로 표기
 3) 도청 내 디지털정책을 담당하는 ‘전략정책정보추진본부’를 개편해 위치해 있는 행정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고, 최첨단기술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의 구조와 의식, 일하는 방식을 철저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음
- 빠르게 돌아가는 세계의 움직임에 주시해 과감하게 도전을 지속해야 함
- 의미 있는 도쿄올림픽 준비
 -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증거로서 올림픽, 패럴림픽 준비
 -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⁴⁾ 또한 스페인 독감과 제1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세계의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 된 바 있음
 - 도쿄올림픽도 앤트워프 올림픽과 같이 역사에 의미 있는 대회로 성공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준비해야 함

<https://www.metro.tokyo.lg.jp/tosei/governor/governor/index.html>

<https://www.facebook.com/koike.governor.tokyo/>

<https://www.digitalservice.metro.tokyo.lg.jp/gaiyou.html>

https://search.yahoo.co.jp/search?p=%E3%82%A8%E3%83%83%E3%82%BB%E3%83%B3%E3%82%B7%E3%83%A3%E3%83%AB%E3%83%AF%E3%83%BC%E3%82%AB%E3%83%BC%E3%81%A8%E3%81%AF&x=wrt&aq=-1&ai=aa4172b6-3f44-4bd7-8d4b-2dea859eba6f&ts=892&ei=UTF-8&fr=top_ga1_sa

<https://ja.wikipedia.org/wiki/3%E3%81%A4%E3%81%AE%E5%AF%86>

이 선 인 통신원, cblsi@naver.com

4) 1920년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제7회 하계 올림픽임. 이 대회 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앤트워프 올림픽은 ‘스페인 독감’ 후 모두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대회로서 의미를 가지게 됨.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시대가 앤트워프 때와 닮아 있다고 보고 앤트워프 올림픽을 인용함

“2021년은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첫해로 매우 중요”

중국 충칭(重慶)시 / 탕량즈(唐良智) 시장 / 신년사

올해는 중국 국가계획인 제14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임. 충칭시는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핵심 경제중심 및 과학기술중심, 개혁개방의 신동력, 고품질의 생활거주지를 건설하려는 비전을 수립.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6% 이상을 목표로 함

2021년은 중국의 제14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로 어느 때보다 중요

- 중국의 제14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2035년 장기목표 요강’¹⁾과 관련이 있음
 - 충칭시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핵심 경제중심 및 과학기술중심, 개혁개방의 신동력, 고품질의 생활거주지를 건설하고, 샤오캉(小康) 사회²⁾를 완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
- 창업혁신의 발전을 견지하여 전국에서 과학기술 창업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추진
 - 올해는 첨단 연구개발기관을 300개 신설하고 하이테크 기업 8,000개를 창업하도록 지원하여, 전체 과학기술형 기업이 4만 5,000개가 넘도록 해 전체 공업기업 중 50%를 차지하도록 함
 - 창업혁신 생태계를 개선하고 충칭의 영재육성계획을 심화시켜 660만 명의 인재 자원을 확보하고, 충칭시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의 2.5%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 산업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경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 제조업의 고품질 성장을 가속화하여 신흥산업군을 발전시키고, 자동차·오토바이·기계·철강·IT 등을 혁신하며,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클러스터 개선 등 중점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공업 규모가 3조 위안에 도달하도록 함
-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촉진해 도시와 농촌의 융합이 가능토록 함
 - 농촌의 발전을 위해 ‘850+’ 도시지하철교통망계획³⁾을 완수하고, 도시 전역에 미(米)자 형태로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며, ‘3환18사다련선(三環十八射多聯線)’ 고속도로망⁴⁾을 완비하고, 충칭공항을 청두(成都)시의 공항과 연계해 글로벌급 공항지대를 건설

1) 2035년 장기목표 요강은 2035년까지 GDP는 200조 위안,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국가목표를 담음

2) 샤오캉(小康) 사회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가리킴

3) ‘850+’ 도시지하철교통망계획은 지하철 8개 노선을 확장하여 노선을 새로이 215km 늘리는 계획

4) 3환18사다련선(三環十八射多聯線) 고속도로망은 3개의 환선 고속도로와 18개의 구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

- 이에 따라 고속철도의 총연장은 2,000km, 지하철의 총연장은 1,000km,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4,600km, 도심 일반도로의 총연장은 7,000km, 공항의 연간 총 이용객은 8,000만 명 등에 도달될 예정
-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발전에 매진하여 문화홍성도시가 되도록 노력
 - 올해 충칭박물관, 충칭자연박물관 등을 ‘10대 신문화시설’⁵⁾로 완공하여 개장
 - 문화산업시범원구, 도시공연예술집적구, 야간문화여행소비집적구 등을 조성하여 문화산업 규모를 충칭시 전체 GRDP의 4.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생태 우선의 녹색 발전전략을 견지하여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촉진
 - ‘장강보호법’⁶⁾의 전면 시행에 따라 장강의 오염원 차단에 주력하고, 향후 10년 동안 장강에서의 어류 조업 활동을 금지하고 치수와 재해 방지에 더욱 신경을 씀
 - 충칭시 전체 산림녹화 비율을 2020년 52%에서 57%로 높여 대기질이 국가 기준으로 우수 수준인 80%보다 더 높은 88%를 달성하도록 개선

2021년 충칭시의 경제성장률은 6% 이상이 목표

-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6% 이상 달성할 계획
 - 고정자산 투자는 6% 증가,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7% 성장, 대외무역 총액은 5% 증가, 주민 1인당 GRDP는 7% 성장, 지난해 4.5%였던 실업률을 5.5% 이내로 억제, 소비자물가는 3.2% 이내로 유지, 식량 생산량은 108억kg 생산 등이 주요 목표
 - 이를 위한 10가지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
 - ① 과학기술과 창업혁신의 추진을 심도 있게 진행, ② 청두시와 더욱 협력하여 ‘청위(成渝)경제권’⁷⁾ 건설 심화, ③ 산업클러스터 및 공급클러스터의 현대화 수준 제고, ④ 중점 분야 개혁 심화, ⑤ 일대일로(一帶一路) 발전에 매진, ⑥ 농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 ⑦ 도시 업그레이드 행동계획의 실천 지속, ⑧ 오염방지와 녹색 생태 건설 가속화, ⑨ 사회보장과 민생개선을 확실하게 추진, ⑩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여 재유행 방지

http://www.cq.gov.cn/zwgk/zfxxgkml/zfgzbg/202101/t20210128_8857504.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5) 10대 신문화시설은 충칭박물관, 충칭자연박물관, 대하(大河)문명관, 중국수문(水文)박물관, 충칭담판기념관, 충칭대공습기념관, 중국철강박물관 충칭분원, 장강도서관, 장강음악홀 등을 가리킴

6) 장강보호법은 장강(長江, 양쯔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

7) 청위경제권은 중국 4대 경제권 중 하나로 충칭시와 쓰촨성 전체를 포괄. 청(成)은 청두시, 위(渝)는 충칭시의 약칭

올해 경제성장률 7% 이상 달성 추진

중국 쓰촨(四川)성 / 황창(黃強) 성장 / 신년사

쓰촨(四川)성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국 평균 목표치 6%보다 높은 7% 이상 달성할 계획. 이를 위해 강력한 공업, 소비 촉진 등 8가지 '업무 구상'을 설정하고, 창업혁신시스템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과학기술·창업혁신의 새로운 중심을 건설하는 등 10가지 '업무 내용'을 제시

2021년 쓰촨성의 경제성장률은 7% 이상이 목표

- 올해 쓰촨성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목표치 6%보다 높은 7% 이상 달성할 계획
 - 고정자산 투자는 7% 증가,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10% 성장, 대외무역 총액은 전국 평균 목표보다 초과 달성,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취업인구는 85만 명 증가, 소비자물가는 3.5% 이내 유지, 식량 생산량은 350억kg 생산 등이 주요 목표
 - 이를 위해 8가지 '업무 구상'인 ① 강력한 공업, ② 안정된 농업, ③ 소비 촉진, ④ 내수 확대, ⑤ 순항하는 프로젝트, ⑥ 끊임없는 창업혁신, ⑦ 막힘없는 순환경제, ⑧ 품질 제고 등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업무 내용'을 추진

10가지 '업무 내용'을 추진해 올해의 경제사회 목표 달성

- 청위(成渝)경제권¹⁾ 건설 전략을 더욱 견인하고, 일간다지(一幹多支) 및 오구협동(五區協同)²⁾을 한층 심화시킴
 - 수립된 '청위경제권 건설계획 요강'과 충칭(重慶)시와의 합동 시행방안을 바탕으로 청위경제권의 건설을 가속화하면서 쓰촨성 내 여러 지역 및 경제지구와 상호협력 및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
- 창업혁신시스템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창업혁신의 새로운 중심을 건설하도록 견인
 - 쓰촨성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우주항공과학기술, 생명과학, 핵기술, 전자정보 등의

1) 청위경제권은 충칭(重慶)시와 쓰촨성 전체를 포괄하는 중국 내에서 유일한 메가 경제권으로, 청(成)은 청두(成都)시, 위(渝)는 충칭시의 약칭

2) 일간다지의 일간(一幹)은 쓰촨성의 성도(省都)이자 국가 중심도시인 청두시를, 다지(多支)는 쓰촨성의 여러 갈래 지역을, 오구협동의 오구(五區)는 쓰촨성의 5개 경제지구인 청두평야경제구, 쓰촨남부경제구, 쓰촨동북경제구, 판시(攀西)경제구, 쓰촨서부경제구를 가리킴

산업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

- 농촌진흥의 목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에 더욱 매진
 - 경작지 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농업의 기본 목표를 농촌 주민의 빈곤 탈출과 연계하여 현대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
-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여 경제체제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
 - 제조업의 제품 품질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현대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 이동통신 5G 시스템의 보급을 계기로 디지털경제로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
- 내수 확대 전략을 견지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더욱 심도 있게 추진
 - 청두市가 국제 소비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풍토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소비활동이 더욱 촉진되도록 현대화된 물류·유통시스템 구축에 매진
-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지속하여 기업투자와 비즈니스환경의 경쟁력 제고
 - ‘일망통판(一網通辦)³⁾의 정착과 심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와 비즈니스 활동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 장강(長江, 양쯔강) 상류 생태 보존을 공고히 함
 - ‘장강보호법⁴⁾의 전면 시행에 따라 장강 상류에 위치한 쓰촨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욱 철저한 오염방지시스템을 구축
- 확실한 사회보장과 민생 개선으로 사회관리 수준을 제고
 - 사회 안정은 주민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가 철저히 보장되고, 주민의 주거 개선이 전제되어야 뿌리내릴 수 있음
- 코로나19 재유행을 방지하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 안전한 발전 기조를 유지
 - 코로나19가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기업, 기관, 지역이 모두 책임을 지고 방역을 엄격히 실행
- 省정부의 내부 개혁을 강화해 정부의 관리 역량과 수준을 제고
 - 정부와 공공기관 구성원의 정치, 법치, 청렴 의식 등을 부단히 제고하고, 주민 대상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

<http://www.sc.gov.cn/10462/c105962/2021/2/5/7124b99320b0457f98d483a30ef61199.s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3) 일망통판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가리킴

4) 장강보호법은 장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혁신도시 조성

중국 포산(佛山市) / 주웨이(朱伟) 시장 / 신년사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포산시의 성장에 역경이 있었지만, 정부와 주민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감. 올해도 포산시는 내수시장 강화, 혁신산업 구축, 주민을 위한 사회정책 및 도시 정책 등을 추진하여 질 높은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

다사다난했던 중국과 포산의 2020년

- 2020년은 중국의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과 '13.5' 계획이 마무리된 해
 - 샤오강 사회란 중국의 국가 목표로,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
 - '13.5'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
 - 2021년 시진핑 국가 주석은 “우리는 샤오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기본적으로 달성했다”고 선언
-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
 - 고난 속에서도 포산시 정부와 시민은 협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
- '6대 안정 및 6대 보장'(六穩·六保) 사업을 철저히 수행해 포산의 생산·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 6대 안정 및 6대 보장(六穩·六保)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대책
 - 6대 안정(六穩)은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유치, 투자, 시장 전망의 안정을 의미
 - 6대 보장(六保)은 취업,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사슬 안정, 기층 조직 운영의 보장을 의미
- 다양한 자원 요소로 혁신적 창업 촉진
 - 펩시코, 쉬공그룹(徐工集团)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산에 속속 입주
 - '5G+산업인터넷' 융합 애플리케이션 적용 가속화, 혁신적 창업 붐 조성 및 지원
 - 광둥항 호주 다완(大灣)구 건설을 위해 선전(深圳)시와 합작 추진
- 도시 이미지 향상
 - 중심지역 정비, 엄격한 환경 관리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생태환경 개선

- 특히 시민의 생활여건과 복지 향상에 힘씀
 - 일반 공공예산의 70% 이상을 민생개선에 투자
 - 빈곤현 27곳, 빈곤촌 2,697곳, 빈곤층 106만 7,000명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남으로써 전국의 빈곤 퇴치에 결정적 기여를 함
 - 기초 민생과 사회보장 수준을 꾸준히 높여 주민생활의 지속적인 개선과 사회 전반의 조화 및 안정을 도모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역경 속에서도 2020년 포산의 GRDP가 1조 위안을 넘는 성과를 거둠

2021년에도 포산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

- 2021년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는 해
 - 14.5 계획¹⁾의 시작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
- 쌍순환(双循环) 정책에 적극 참여해 내수시장의 성장전략을 강화
 - 쌍순환 정책이란 수출 의존적인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수출과 개혁·개방을 지속하면서도 대내적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기술혁신 주도 내수성장 모델
 -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능력을 키우겠다는 전략
- ‘6대 안정 및 6대 보장’(六稳·六保) 사업을 지속 시행
 - 시장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경제운영 방식을 유지
 -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 및 발전, 고도 혁신 플랫폼 구축
 - 혁신기술을 강화하고,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를 심층적으로 통합 추진해 산업의 고도화 및 산업사슬의 현대화 추진
- 항상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진
 - 취업, 교육, 의료, 노후, 육아, 주거 등의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
-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 농촌 진흥 전략을 시행하고 도시계획, 도시관리를 강화
 -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사회 관리를 강화해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거지를 만들 예정

1)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나온 제14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말함.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생복지, 에너지 자원 등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임

<https://baijiahao.baidu.com/s?id=1687739003253822201&wfr=spider&for=pc>

손 지 현 통신원, son_passion@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04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5월 3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